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삼호 구청장님이하 광산구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시작 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60년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해에는
광산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어봅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로 인하여 승진과 영전이 되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또한 인사에 소외되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첨단, 비아, 하남,임곡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기획총무위원회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잠시 회상공대

본 의원은 광산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1만 광산구민 여러분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한지가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매우 의미 있고 보람차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2018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조식사업에 대해서 칭찬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많은 언론과 지자체 청와대에서 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광산구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단호반3-1차, 쌍암중흥S클래스, 침단부영7차, 선운리버프라임, 수완영무2차, 영천주공10단지, 운남주공2단지, 하남중흥S클래스, 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아직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무 부서인 주민자치과 직원분들의 합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델이 될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 주민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고
보니 자랑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한가지를 더 자랑하고자 합니다
먼저 PPT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아동은 약 3.200세대에 7.200여명의 인구수가 말해
주듯이 작지만 실속이 짝 찬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아동은 그저 발전도 없고 원도심에 가까운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모아 두었던 자리가 지금은 갤러리가 되어서 오고가는
주민분들의 쉼터이며 소통방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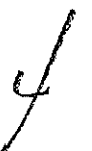
비아동장께서 2018년7월30일자로
저희 지역구인 비아동장으로 취임하여
본 의원의 선거때 슬로건인
이웃과 함께 밝은동네를 동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대신 실천한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칭찬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비아동이 눈에 띄게 깨끗하고 상쾌하게 변모한 것은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새해부터 이런 칭송을 본 의원만 들을게 아니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산구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정은 더욱 확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도록 좀더 노력하여 주실것으로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광산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본 의원은 힘차게 응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